

# 施事·受事와 主語·賓語의 불일치 현상 고찰

박다래\*

## 目 录

1. 서론
2. 施事·受事와 主語·賓語의 관계와 불일치 현상
3. 의미역 이론과 불일치 문제 해결방안 모색
4. 인지·구문문법을 통한 불일치 현상 이해
  - 4.1 NPL + V + 着 + NP
  - 4.2 NP1 + V + 了 + NP2
  - 4.3 NP1 + 追累 + 了 + NP2 + 了
5. 결론

## 1. 서론

‘施事(행위자, agent)’와 ‘受事(수동자, patient)’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施事는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실체이고 受事는 동사의 동작에 영향을 받는 실체이다. 예를 들어, “我打那隻狗了。”라는 문장에서 개를 때리는 행위의 주체인 主語 성분 ‘我’는 ‘施事’이고, 동작에 영향을 받은 실체인 賓語 성분 ‘那隻狗’는 ‘受事’이다. 이와 같은 통사적인 主語 성분이 의미적인 施事와 일치하고, 또한 賓語 성분이 受事와 일치하는 문장들을 많이 볼 수 있다. 施事와 受事の 개념은 의미론 분야에서 유래된 만큼, 이들은 문장 안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되다가, 이러한 의미 층위가 점점 통사 층위, 화용 층위와도 연관되어 연구되는 경향이 커졌고, 이에 따라 主語가 施事로, 賓語가 受事로

\* 高麗大 中日語文學科 博士修了

인식되는 경향이 생겨났다. 문장에서 施事가 主語이고, 受事가 賓語이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 중국어의 문장 중에는 施事·受事와 主語·賓語가 불일치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문장에 관심을 보이며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본고에서는 우선 施事·受事와 主語·賓語의 관계 및 불일치 현상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의미역 이론을 통한 불일치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지 문법과 구문 문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들을 소개함으로써 불일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겠다.

## 2. 施事·受事와 主語·賓語의 관계와 불일치 현상

중국 초기 문법 연구에 있어서 主語와 賓語의 개념은 중국 최초로 서양의 문법 이론을 도입하여 중국어의 문법 체계를 저술한 馬建忠의 『馬氏文通』의 ‘起詞’, ‘止詞’의 개념에서 엿볼 수 있다. 『馬氏文通』에서는 문장의 주요성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詞’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起詞’, ‘語詞’, ‘止詞’, ‘轉詞’, ‘表詞’, ‘司詞’, ‘加詞’ 등 7개의 문장 성분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 ‘起詞’는 영어에서 말하는 Subject, 즉 主語에 해당하는 말로서 문장 구성의 주요성분에 속하고, ‘止詞’는 타동사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 또는 이에 해당하는 句나 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賓語에 해당한다.<sup>1)</sup>(허백 1992:31-32) 이러한 ‘起詞’, ‘止詞’ 용어는 呂叔湘(1942)<sup>2)</sup>에 의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는 主語와

1) 起詞, 止詞 이외의 문장성분에 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허백 1992:31-32)

- 語詞: 起詞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로서, 謂語 또는 述語에 해당함.
- 轉詞: 사람, 장소, 시간, 가치, 도량형, 원인, 목적, 효과 등을 표시하는 간접목적어에 해당함.
- 表詞: 주어의 사태를 묘사하는 말로, 形容詞述語에 해당함.
- 司詞: 명사나 대명사가 介詞에 이끌러지는 것으로, 介詞賓語에 해당함.
- 加詞: 명사나 대명사, 또는 受事 등이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여 이를 수식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介詞句와 同位語 등에 해당함.

賓語 이외에도 ‘起詞’와 ‘止詞’를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馬氏文通』의 두 용어를 따른 것으로서, “무릇 그 행위의 꺾임을 받는 것을 止詞라하고, 그 행위의 시작됨을 말하는 것을 起詞라 한다.”(『馬氏文通·外動字四之一』)는 설명에 의해, ‘起詞’와 ‘止詞’는 각각 ‘施事’와 ‘受事’를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呂叔湘(1946)<sup>3)</sup>이 이후의 논저에서 ‘起詞’와 ‘止詞’의 용어를 대신하여 ‘施事’와 ‘受事’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로도 추정할 수 있다. 그는 중국어의 主語와 賓語 문제를 토론하면서, 중국어에서는 서양 언어와 같은 격 변화나 태(voice) 등의 형태에 의해서 문장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통사위치와 施事와 受事 관계에 의거하여 문장의 종류를 분별한 다음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토론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통사 위치는 형식을 분석하는 기준이 되고, 施事와 受事 관계는 의미를 분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영어의 ‘the actor’와 ‘the acted upon’에 해당하는 중국어 번역 용어로 ‘施事’와 ‘受事’를 사용하였다. 그의 이러한 논의는 중국문법학계 내에서 최초로 施事와 受事を 의미개념의 하나로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朱德熙 1985:40-41, 張伯江 2009:7)

그렇다면 施事·受事와 主語·賓語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일까? 1950년대에 중국문법학계 내에서는 主語와 賓語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그 중 쟁점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떠한 기준에 의거하여 중국어의 主語와 賓語를 확정해야 하는가.”라는 논의였다. 이러한 논의 중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였다. 한 관점은 主語와 賓語를 ‘형식’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관점은 이들을 ‘의미’를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실제로 문장 성분이 출현하는 위치에 따라서 主語와 賓語를 구분하자는 것인데, 즉 동사 앞의 명사성 성분을 主語로, 동사 뒤에 출현하는 명사성 성분을 賓語로 보자는 관점이다. 후자는 施事와 受事に 의거하여 主語와 賓語를 판별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통사적

2) 呂叔湘(1942), 『中國文法要略』, 北京商務印書館. (張伯江(2009:8) 재인용)

3) 呂叔湘(1946), 「從主語, 賓語的分別談國語句子的分析」, 『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 商務印書館, 1984年.(張伯江(2009:8) 재인용)

인 위치와 상관없이 施事는 일반적으로 모두 主語이고 受事는 일반적으로 賓語라는 것이다.(李臨定 1984:8) 主語와 賓語를 의미에 따라서, 즉 施事와 受事に 의거하여 구분하자면 후자의 관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施事’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행위 혹은 활동을 일으키는 명사성분이고, ‘受事’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행위 혹은 활동을 받는 명사성분인데,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대부분의 동사는 동작, 행위 혹은 활동을 나타내므로 主語와 賓語가 각각 施事와 受事の 의미를 갖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존현문과 같이 특수한 구문에 출현하는 명사구, 동작 활동을 나타내지 않는 동사와 출현하는 명사구, 그리고 형용사나 피동문에 출현하는 명사구에 있어서 主語·賓語와 施事·受事の 관계를 확정짓기가 쉽지 않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1) a. 臺上坐着主席團。  
단상에 의장단이 앉아 있다.  
b. 牆上挂着畫。  
벽에 그림이 걸려 있다. (陸儉明 2008:143)
- (2) a. 我等個人。  
나는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  
b. 我看見一條狗。  
나는 개 한 마리를 보았다. (呂叔湘 1946)<sup>4)</sup>
- (3) 速度很快。  
속도가 매우 빠르다. (朱德熙 1982:18)
- (4) 我的衣服被他弄髒了。  
내 옷은 그에 의해 더럽혀졌다. (김현철 1999:21-22)

의미적으로 분석하면, (1a)의 ‘主席團’은 施事이고, (1b)의 ‘畫’는 受事이지

4) “我看見一條狗”, 事實上狗的形象映入我眼中, “我等個人”, 事實上我听命于人, 處於消极的被動地位。但是在這些句子里我們還是把“我”当作施事, “狗”和“人”当作受事。呂叔湘(1946), 「從主語, 賓語的分別談國語句子的分析」, 『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 商務印書館, 1984年。(張伯江(2009:8) 재인용)

만, 통사적으로는 賓語위치에 출현한다. 그렇다면 主語와 賓語를 ‘형식’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개의 명사구는 모두 賓語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미’를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主席團’는 施事이므로 主語가 되고, ‘畫’는 受事이므로 賓語가 되므로, 이에 따라 두 견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主語·賓語와 施事·受事の 관계를 확정짓기가 어렵다. 또한 (2a)에서 ‘我’는 主語 위치에 출현하지만 기다림을 당하는 입장으로 施事라고 확정하기 어렵고, (2b)의 ‘狗’는 ‘我’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므로 受事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3)과 같이 형용사와 함께 출현하는 ‘速度’ 또한 施事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2a)의 ‘我’와 (3)의 ‘速度’가 施事가 아니기 때문에 主語가 아니라고도 단언할 수도 없다. (4)의 예문은 ‘의미’에 의거한 학자들의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면, ‘他’는 施事이므로 主語이고, ‘我的衣服’는 受事이므로 賓語이지만, ‘형식’에 의거한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분석 방식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이와 같이 受事が 통사적으로 主語 위치에 출현하거나, 혹은 施事が 賓語 위치에 출현하여 主語·賓語와 施事·受事の 관계를 확정짓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외에도 아래 예문을 살펴보면 施事와 受事が 모두 문장 안에서 主語 혹은 賓語 위치를 차지하여, 그 관계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5) 王冕死了父親。  
 王冕은 부친을 여의었다. (沈家煊 2000:293)
- (6) 張三追累了李四了。  
 (沈家煊 2004:3)

예문 (5)를 살펴보면, ‘王冕’은 主語 위치에서 受事이고 ‘父親’은 賓語 위치에서 受事が 되는데, 이 문장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死’라는 동사가 자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타동사와 같이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문법 개념에 어긋나는 문장이고, 또한 主語·賓語와 施事·受事の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7)의 예문은 동사 ‘追’가 결

과보어 ‘累’와 결합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7) a. 張三追李四, 李四累了。  
 b. 張三追李四, 張三累了。  
 c. \*李四追張三, 張三累了。  
 d. 李四追張三, 李四累了。 (沈家煊 2004:3)

위 예문들에서 보면, (7c)을 제외하고 (7a), (7b), (7d)는 모두 (6)의 문장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술어 ‘追累’를 포함하는 (6)과 같은 문장에서는 施事·受事와 主語·賓語의 관계를 확정짓기 어려운 단계를 떠나서, 확정할 수 없는 단계에 놓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施事·受事와 主語·賓語의 불일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러한 불일치 현상을 의미역 이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 3. 의미역 이론과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모색

施事·受事와 관련된 서양 문법 연구에서는 중국 초기 문법 연구에서 施事·受事を 主語·賓語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어진 것과는 달리, 동사와의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施事와 受事は 각각 ‘Agent(행위자)’와 ‘Patient(수동자)’에 해당하며, 동사와 연관되는 의미 중의 하나로 분류되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격 문법(Case grammar)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Fillmore는 촘스키의 표준이론에 한계를 느껴 통사적인 규칙 이외에도, 의미적인 규칙 또한 필요하다고 여겼다. Fillmore가 제시한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8) a. The door opened.

- 문이 열렸다.
- b. John opened the door.  
존이 문을 열었다.
- c. The wind opened the door.  
바람으로 문이 열렸다.
- d. John opened the door with a chisel.  
존이 끌로 문을 열었다.

위의 네 개의 문장에 대해서 변형생성문법의 표준이론에서는 각각 모두 다른 네 개의 심층구조를 가지며 명사구를 문장의 주어, 동사의 목적어로 해석하였으나, Fillmore는 이와 같이 표준이론에서 주어 및 목적어와 같은 문법적인 관계를 하나의 표면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에 대해 비판하였다. 격문법이 나오기 이전의 변형문법에서는 위의 네 문장이 각각 다른 심층구조에서 유도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격 문법에서는 ‘open’은 ‘The door’, ‘a chisel’, ‘John’, ‘wind’와의 관계에 있어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여겼다. 통사적인 위치와 관계없이 ‘John’은 사건을 일으키는 유생적인 존재로서 동작하는 역할을 하므로 ‘행위격(Agentive case)’이고, ‘the door’은 동사의 영향을 받는 객체인 ‘대상격(Objective case)’이며, ‘chisel’과 ‘wind’는 사건의 직접적인 물리적인 원인이 되는 ‘도구격(Instrumental Case)’이다. 이 외에 격 종류로는 ‘여격(Dative)’, ‘결과격(Factitive)’이 있다. 이러한 격들은 주어, 목적어라고 하는 위치에 관계시킬 수 없는 의미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관계개념이며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격 이론은 객관적으로 격 또는 의미역의 경계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Fillmore 자신도 여러 번 이론을 수정하였으며<sup>5)</sup>, 연구자에 따라 각 의미역의 정의가 달라지고 그 개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의 문제점을 보여 지속적으로 이론이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언어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 이론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생성 문법에서의 지배-결속 이론(GB)에서 다루는 의미역 이론(Theta theory)이다. 생성문법에서 말하는 ‘의미역’이란 논항(argument)이 행할 수 있는 수많은 의미역할, 즉 의미역을 몇 가지 주요한 대표

5) Fillmore는 시기마다 격의 종류를 달리하였는데 그의 연대별 격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필옥덕 2004:38)

적 의미역할로 분류해 놓은 것이며, 이러한 의미역할은 Fillmore의 격 이론에서 말하는 격의 분류 및 그 개념이 비슷한데, 그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Fillmore, C.(1968/1986), 封宗信(2007) 참고).

「표 1」 의미역의 보편적인 분류<sup>6)</sup>

의미역 종류	의미와 예문
행위자 (Agent)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동작의 주체 The <u>boy</u> danced.
수동자 (Patient)	어떤 동작의 효과를 겪는, 특히 상태에 어떤 변화를 겪는 실체 The lady peeled <u>the apple</u> .
대상 (Theme)	동작에 의해 이동을 겪는 실체, 혹은 위치가 기술되는 실체 The boys moved <u>the stone</u> .
경험자 (Experiencer)	서술어에 의해 기술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 동작이나 상태를 통제할 수 없는 실체 The <u>mother</u> was happy when the baby came back.
수혜자 (Beneficiary)	수행되는 동작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실체 Harry helped <u>Sam</u> .
도구 (Instrument)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는 수단 We cut the bread with <u>the knife</u> .
장소 (Location)	대상이 위치해 있거나 발생하는 장소 They live in <u>Seoul</u> .
목표 (Goal)	대상의 이동이 지향하는 실체 John gave the book to <u>his friend</u> .
근원 (Source)	대상이 이동해 나온 실체 The student came from <u>Canada</u> .

연대	격 명칭
1966	행위주(Agentive) 도구(Instrumental) 객체(Objective) 처소(Location) 시간(Time) 여격(Dative) 수익자(Benefactive) 수반(Comitative)
1968	행위주(Agentive) 도구(Instrumental) 객체(Objective) 종점(Factitive) 처소(Location) 시간(Time) 여격(Dative) 수익자(Benefactive) 수반(Comitative) 존재(Essive) 전환(Translative)
1971	행위주(Agentive) 경험주(Experiencer) 도구(Instrument) 객체(Object) 내원(Source) 종점(Goal) 처소(Place) 시간(Time) 경로(Path)
1977	행위주(Agentive) 객체(Patient) 내원(Source) 종점(Goal) 범위(Range)



이러한 의미역 이론을 통하여 앞에서 제시하였던 예문들을 다시 살펴보자.

- (2) a. 我等個人。  
 나는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  
 b. 我看見一條狗。  
 나는 개 한 마리를 보았다
- (3) 速度很快。  
 속도가 매우 빠르다.
- (4) 我的衣服被他弄髒了。  
 내 옷은 그에 의해 더럽혀졌다.

(2a)의 ‘我’는 기다림을 당하는 입장이므로 동작의 주체인 施事로 보기가 힘들고, (2b)의 ‘狗’ 또한 ‘어떤 동작의 효과를 겪는, 특히 상태에 어떤 변화를 겪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자(Patient)’, 즉 受事로 볼 수 없다. 또한 (3)의 형용사술어문의 주어 위치에 출현하는 ‘速度’는 비슷한 의미역을 찾을 수도 없다. 이어서 (4)의 예문을 살펴보면, ‘我的衣服’는 ‘他’로 인하여 ‘어떤 변화를 겪는 실체’이므로 ‘수동자(Patient)’, 즉 受事로 볼 수 있고, ‘他’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동작의 주체’이므로 ‘행위자(Agent)’, 즉 施事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의미역을 설정하게 된다면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主語와 賓語를 설정함에 있어서 ‘의미’에 의거한 학자와 ‘형식’에 의거한 학자들 간에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김현권·김종명(2001)<sup>7)</sup>은 그동안 언어학자들이 전형적인 의미역만 직관에 의해 주로 거론해 왔고 학자들마다 의미역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고, 또한 그 종류가 완전하지 않아 실제 문장에서 의미역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

6) 이 표에서 제시한 의미역의 종류는 보편적인 것으로, 생성문법에서도 Fillmore의 격과 마찬가지로 생성문법에서도 학자마다 제시하는 의미역의 수량과 종류가 일정하지 않다. 시정근(2000:53-54), 정태구(2001:10-11) 참고.

7) 김현권·김종명(2001)은 논문에서 세종 전자사전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사전의 하나인 세종 용언전자사전에서 사용되는 의미역 기술체계 및 목록을 소개하였다.

등 의미역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미역을 세분화 시켰는데 이러한 의미역 종류로는 ‘대상행위주(Affected Agent)’, ‘경험주(Agent Experiencer)’, ‘공여주(Donner)’, ‘원인주(Causer)’, ‘수령주(Recipient)’, ‘공조행위주(Joined Agent)’, ‘행위주(Agent)’, ‘상태주(Positionner)’, ‘소유주(Possessor)’, ‘비의도행위주(Effector)’, ‘동반행위주(Co-agent)’, ‘피해주(Patient)’, ‘경험자(Experiencer)’, ‘동작대상(Motion Theme)’, ‘공조동작대상(Joined Motion Theme)’, ‘상태대상(Matter Theme)’, ‘공조상태대상(Joined Matter Theme)’, ‘대상(Affected Theme)’, ‘참조대상(Creature)’, ‘중립대상(Neutral)’, ‘장소(Location)’, ‘도착점(Goal)’, ‘결과상태(Final State)’, ‘출발점(Source)’, ‘최초상태(Initial State)’, ‘방향(Direction)’, ‘경로(Path)’, ‘행로(Range)’, ‘목적(Object)’, ‘장면(Scene)’, ‘기준치(Criterion)’, ‘정도(Degree)’, ‘재료(Material)’, ‘도구(Instrument)’가 있다. 이렇게 의미역을 세분화 시키면, 主語와 賓語의 위치에 출현하는 성분들을 施事, 受事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정확한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a)의 ‘我’와 (4)의 ‘我的衣服’에 ‘대상행위주(Affected Agent)’<sup>8)</sup>의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고, (2b)의 ‘狗’에 ‘대상(Affected Theme)’<sup>9)</sup>의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역을 부여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主語와 賓語를 설정함에 있어서 ‘의미’에 의거한 학자와 ‘형식’에 의거한 학자들 간에 모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미역 세분화는 主語, 賓語 위치 외에 출현하는 모든 성분에 의미역을 지정할 수 있어 언어학적 분석 및 자연 언어처리에 있어서 유용하다.

8) 대상행위주(Affected Agent):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를 지배(Control)라는 논항이면서 그 행위에 의해 스스로가 영향을 받는 논항, 즉 대상(Theme)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논항이다. 위치의 이동이나 상태의 변화를 스스로 겪는 행위자이다. 일단 동일한 위치에 대상(Theme)이 올 수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예) 철수가 학교에 갔다. 편지가 한 통 영희에게 갔다. 철수가 언덕에서 굴렀다. 바위가 언덕에서 굴렀다. 철수가 죽었다. 그 나무가 죽었다. (김현권·김종명 2001:321)

9) 중립대상(Neutral): 동작이나 과정의 대상이지만 위치 이동이 되지도 않고, 그 위치(물리적 추상적)가 단언되지도 않으며, 그 동작이나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도 않는 요소이다. 예) 나는 영어를 배웠다. 나는 영희를 사랑한다. (김현권·김종명 2001:322)

그러나 의미역 세분화에 있어서 문제점과 한계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형용사술어문의 명사구에 대한 의미역의 세분화에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김현권·김종명(2001:322)에서는 형용사 술어문에 대한 의미역으로 상태주(Positionner)<sup>10</sup>를 설정하였지만 (3)의 ‘速度’를 의미역으로는 함당하지 않아 더욱 세분화된 형용사 술어문에 대한 의미역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수동구문에 대한 의미역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김현권·김종명(2001:323-344)에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중 하나로 수동구문에 대한 의미역 설정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내가 철수를 때렸다.”는 “철수가 나에게 맞았다.”는 심층 의미가 같지만 표층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철수를 때렸다.”에서 ‘내가’가 ‘때리다’란 서술어와 맺는 의미적 관계가 “철수가 나에게 맞았다.”에서 ‘나에게’가 ‘맞았다’와 맺는 의미적 관계가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들은 임시적으로 주어인 ‘철수가’와 동작주보어인 ‘나에게’를 각각 ‘행위주(Agent)’라는 의미역을 부여했는데, 그 이유로 현재로서는 동작주보어 ‘나에게’에 부여할만한 적절하고도 고유한 의미역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수동구문에 대한 문제점은 예문(4)의 “我的衣服被他弄脏了。”에서 ‘他’의 의미역 설정과도 연관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의미역 세분화 목록은 한국어 문법 체계에 맞춘 분류 목록으로 중국어 문법 체계에 맞는 의미역 세분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역 세분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중국어만이 가지는 특수한 구문들이 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인지문법과 구문문법에 근거한 여러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여 이러한 구문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겠다.

10) 상태주(Positionner): 형용사가 표현하는 상태를 지배하는 논항. 주어 논항인 경우에는 명령문을 만들 수 있고, ‘...려고 노력하다’의 내포문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철수가 아주 침착하다. (김현권·김종명 2001:322)

## 4. 인지·구문문법을 통한 불일치 현상 이해

## 1) NPL + V + 着 + NP

중국어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구문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主語·賓語와 施事·受事の 관계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예문을 다시 아래와 같이 제시하겠다.

- (1') a. 臺上坐着主席團。  
단상에 의장단이 앉아 있다.  
b. 牆上挂着畫。  
벽에 그림이 걸려 있다. (陸儉明 2008:143)

陸儉明(2008)은 'NPL + V + 着 + NP' 형식의 구문에서 NP가 施事 혹은 受事로 출현하는 현상에 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문법의 논항 구조 이론에서 동사의 施事は 외재논항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출현해야 한다. 그러나 (1a)의 '主席團'은 施事の 의미역을 가지지만 賓語 위치에 출현하기 때문에, 이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1b)의 '挂'는 두 개의 논항을 가지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受事 의미역은 賓語 위치에 출현하는 반면, 施事 의미역은 主語 위치에 출현하지 않는다. 셋째, 아래 예문 (9)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術賓 구조에서 賓語 자리의 의미역이 다르면, 그에 따라 의미 차이를 보이지만, (1)에서는 같은 구조 속에 賓語 위치에 출현하는 '主席團'과 '畫'의 의미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똑같이 '존재'를 나타내고 '정태성'을 갖는다.

- (9) 吃苹果(수동자), 吃大碗(도구), 吃食堂(장소), 吃环境(목적), 吃父母(기반)  
(陸儉明 2008:143)

陸儉明(2008:143-144)은 이와 같은 의문점을 구문 문법 이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문 문법<sup>11)</sup>에서는 문장의 구조가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 문장의 의미는 문장의 의미는 그 구성성분에 의미에만 의거해서 유추할 수 없으며, 동사의 의미와 구문의 의미가 융합하여 나타낸다고 여긴다. 이 문법은 인지문법의 영향을 받아 출현하였는데, 인지문법에서는 생성 문법과는 반대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구, 단문, 복문 등의 크고 작은 구문은 모두 형식과 의미의 결합체이며, 나아가 심리상의 ‘게슈탈트’<sup>12)</sup>로 그 전체

- 11) Goldberg(1995)는 구문 문법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그는 영어의 논항 구조 구문(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이 구문의 특별한 하위 구문으로서 한 언어의 절 표현을 위한 기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아래의 다섯 가지 구문들을 중심으로 연관된 문법 현상에 대하여 논술했다.
- a. 이중 타동 구문(Ditransitive)  
X가 Y에게 Z를 받도록 하다.(X causes Y to receive Z)  
주어 동사 목적어1 목적어2  
Pat faxed Bill the letter.
  - b. 사역 이동 구문(Caused Motion)  
X가 Y를 Z로 이동하게 하다.(X causes Y to move Z)  
주어 동사 목적어 사격  
Pat sneezed the napkin off the table.
  - c. 결과 구문(Resultative)  
X가 Y를 Z가 되게 하다.(X causes Y to become Z)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She kissed him unconscious.
  - d. 자동사 이동 구문(Intrans. Motion)  
X가 Y로 움직이다.(X moves Y)  
주어 동사 목적어  
The fly buzzed into the room.
  - e. 능동 구문(Conative)  
X가 직접적으로 Y에게 행위하다.(X directs action at Y)  
주어 동사 목적어  
San kicked at Bill
- 12) 게슈탈트(Gestalt/configuration)이란, 시야에 있는 어떤 대상을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심리작용을 ‘조직화’하며, 이에 의해 형성되는 통합 구조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세로로 긴 타원 안에 작은 동그라미 두 개가 나란히 그려져 있을 때, 그 그

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입장을 취한다. 구문문법 또한 이러한 입장에 따라, 구문의 의미는 그 구성성분의 의미에만 의거해서 유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sup>13)</sup>

陸儉明(2008)은 구문문법의 이론에 의거하여 앞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이에 의하면 (1a)와 (1b)는 모두 존재를 나타내는 존재구문이며, 그 문법적인 의미는 존재를 표현하며 정태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 구문은 존재하는 실체, 존재하는 장소, 존재하는 방식의 3부분으로 구성되며, 화자가 장소를 화제로 삼으려 할 때, 장소가 문두에 출현하고, 그 뒤에 존재 방식과 존재하는 실체가 뒤따른다고 하였다. 또한 ‘施事 - 動作’, ‘動作 - 受事’의 의미관계는 이러한 존재 구문 안에 그 의미관계가 현저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숨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陸儉明(2008)이 ‘NPL + V + 着 + NP’ 형식을 존재 구문이라고 여기고, ‘NP’의 의미역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실체를 나타낸다는 주장은 (1a)와 (1b)에서 볼 수 있는 施事·受事와 主語·賓語의 불일치 현상 이해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모든 ‘NPL + V + 着 + NP’ 형식이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臺上唱着戲。(무대에서 중국 전통

림을 보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화해서 ‘사람의 얼굴’로 지각하면 그것이 게슈탈트가 되고, 타원 안의 작은 두 개의 동그라미는 2차적으로 ‘눈’이라고 규정된다. 그 때 게슈탈트로 조직화된 ‘얼굴’은 부분으로서의 타원과 작은 동그라미를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인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게슈탈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전체의 성질은 부분의 총화가 아니라 총화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둘째, 부분의 성질은 전체 속에서 규정된다는 성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辻幸夫 2002/2004:8)

13) 張伯江(2000:28)은 구문문법을 소개하면서 術賓구조를 가진 문장과 把字句를 비교하였는데, 아래 예문에서 (a)와 (b)의 문장 안에 성분은 모두 같지만, 구조에 의하여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 他喝了酒。

그는 술을 마셨다.

b. 他把酒喝了。

그는 술을 전부 마셔버렸다.

(b)에서는 술을 다 마셨다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a)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구문 자체의 고유 의미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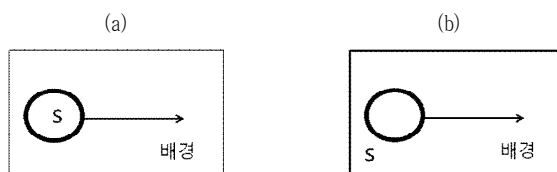
극을 공연하고 있다.)”와 같은 문장은 ‘NPL + V + 着 + NP’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현재 공연이 진행 중이라는 동태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NPL + V + 着 + NP’의 형식을 존재 구문으로 한정시킬 수 없으며, 동사 유형에 따라 이 구문에 대한 세분화가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문문법 이론 이외에도, ‘NPL + V + 着 + NP’ 구문에서 장소가 主語로 출현하는 施事 혹은 受事が 賓語로 출현하는 현상을 인지문법에서 다루는 ‘현저성(saliency)’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Langacker(1991/1999:329-346)는 주어는 문장에서 주로 중추적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지적인 현저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인지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지적으로 가장 현저한 실체가 주어로 선택되며, 동일한 장면을 어떠한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주어의 선택 및 구문 형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10) a. Bees are swarming all through the garden.  
벌들이 정원 곳곳에 들끓고 있다.
- b. The garden is swarming with bees.  
정원은 벌들이 들끓고 있다.

(Langacker 2002/2005:386)

위의 예문은 아래와 같은 영상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무대/참여자 간의 주어 선택(Langacker 2002/2005:386)

위 예문 (10a)는 「그림 1」의 (a)의 영상도식에 해당되며, (10b)는 「그림

1」의 (b)의 영상도식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그림 1」의 (a)와 같이 사건의 무대인 배경은 전치사구로 문장에 출현하며, 행위자가 主語로 선택된다. 반면 무대가 되는 장소가 행위자보다 현저하다면 배경 또한 主語로 선택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1」의 (b)와 같다. ‘NPL + V + 着 + NP’ 구문도 「그림 1」의 (b)에 해당하며, 장소인 무대가 主語로 출현한다. 만약 장소가 아닌 다른 실체에 현저성이 부여된다면 장소 명사구는 전치사와 함께 출현하여 ‘主席團在臺上坐着’, ‘畫在牆上挂着’로 구문이 바뀌게 된다.

이처럼 인지문법에서 다루는 ‘현저성’ 개념은 어떠한 장면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어순을 결정할 수 있는 인지적인 장치로서 ‘NPL + V + 着 + NP’에서 ‘NP’의 의미역에 상관없이 賓語 자리에 출현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2) NP1 + V + 了 + NP2

다음으로 한 개의 논항을 가져야하는 자동사가 타동사처럼 문장에서 두 개의 논항을 갖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 (11) a. 王冕死了父親。  
       王冕은 아버지를 여의었다.  
       b. 他來了兩個客戶。  
       그는 두 명의 바이어를 맞이하였다.       (沈家煊 2000:293)

沈家煊(2000:293-294)에 따르면 ‘死’와 ‘來’의 동사는 원래 갖는 논항의 수가 몇 개 인지와 상관없이, ‘득실(得失)’의 의미가 없으면 논항을 한 개 가지고, ‘득실’의 의미가 있다면 논항을 두 개 갖는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와 같은 ‘득실’의 의미는 ‘NP1 + V + 了 + NP2’의 형태를 갖는 구문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문을 들어 설명하자면, (11b)에서는 ‘客戶’를 맞이하여 사업적으로 이익을 가진다는 ‘획득’ 의미를 가지며, (11a)에서는 王冕이



‘父親’를 여의는 ‘손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만약 (11a)에 ‘七歲上’을 넣으면 ‘王冕七歲上死了父親’의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만, ‘七十歲上’을 넣는다면 ‘王冕七十歲上死了父親’라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러한 이유는 ‘七歲上’을 넣은 문장에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는 ‘손실’이라는 의미가 발생하지만, ‘七十歲上’을 넣으면 이러한 ‘손실’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래 (12) 예문은 (11)의 예문과 동일한 문장 성분을 가지지만, 구문이 다르기 때문에 (11)의 ‘득실’ 의미가 없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서술하고 있다.

- (12) a. 王冕的父親死了。  
 王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b. 他的兩個客戶來了。  
 그의 두 명의 바이어가 왔다. (沈家煊 2000: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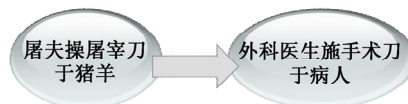
이후, 沈家煊(2006)은 이에 관한 문제를 다시 발전시켜 논의한 바가 있는데, 구문 문법의 이론 중에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는 개념인 ‘개념적 통합(概念整合, conceptual integration)’이라는 이론을 들어 설명하였다.<sup>14)</sup> 여기서 ‘개념적 통합’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甘’과 ‘苦’는 서로 합쳐져 ‘甘苦’가 되지만, ‘甘’과 ‘苦’의 ‘달다’, ‘쓰다’라는 본래 의미 외에 새로운 의미로 ‘즐거움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통합’이 ‘융합(糅合, blending)적 통합’과 ‘절합(截搭, haplology)적 통합’으로 나뉜다고 설명하였는데<sup>15)</sup>, 아래 예문을 보자.

14) 沈家煊(2006)의 통합이론은 Fauconnier, G & Mark Turner(2003,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New York: Basic Books)에 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Fauconnier와 Turner 등의 학자를 중심으로 ‘개념적 혼성이론(Conceptual Blending Theory, 혹은 ‘개념적 통합이론(Conceptual Integration Theory)’이라고도 함)이 제기되었는데, 기존에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 현상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Kövecses 2006/2010:198)

15) ‘융합’적 통합과 ‘절합’적 통합은 문장 외에도 복합어의 의미 생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선 융합적 통합의 복합어의 예로는 ‘牆脚’가 있는데, 그 생성 과정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 형식에서 x와 b가 선택되어 y의 가로 안에 들어갈 완전한

- (13) a. 那個外科醫生又操起了屠宰刀。  
 그 외과 의사는 또 엉터리 수술을 하기 시작했다.  
 (그 외과 의사는 또 도살 칼을 잡기 시작했다.)
- b. a. 屠夫                      b. 操屠宰刀  
 x. 外科醫生                y. 施手術刀                ← xb 外科醫生操屠宰刀  
 (沈家煊 2006:6)
- (14) a. 他被後面的司機按了一下喇叭。  
 그는 뒤에 있는 운전사에게 경고를 당했다.  
 (뒤에 있는 운전사가 그에게 클랙슨을 울렸다.)
- b. 他被後面的司機警告了一下 + 後面的司機按了一下喇叭  
 그는 뒤에 있는 운전사에게 경고를 한번 당하다.  
 + 뒤에 있는 운전자가 클랙슨을 한 번 울리다.  
 (沈家煊 2006:7-8)

(13a)의 융합(糅合, blending)적 통합의 예이고, (14a)는 절합(截搭, haplology)적 통합의 예이다. 우선 (13a)의 문장은 은유 표현으로, 여기서 ‘屠夫操屠宰刀于猪羊’의 개념을 가지고 다른 유사한 개념인 ‘外科醫生施手術刀于病人’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2」 ‘那個外科醫生又操起了屠宰刀’의 은유표현 도식

이 두 개념의 유사한 점은 ‘某人 X 施刀術于 Y’의 추상적 형식으로 표현할

단어가 형성된다. (沈家煊 2006:6)

a. 人 b. 人體底部(脚)

x. 牆 y. 牆體底部(-) ← xb 牆脚

절합적 통합의 복합어의 예로는 ‘歸僑’가 있는데, ‘歸僑’은 ‘歸國(回歸祖國/조국으로 돌아옴)’에서 ‘歸’와 ‘華僑(旅居國外的中國人/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에서 ‘僑’를 합치면 ‘歸僑(귀국한 화교)’라는 복합어의 의미가 생성된다.

回歸祖國(歸國) + 旅居國外的中國人(華僑) → 歸僑

수 있으며, 두 개념이 합해져서 외과의사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새로운 의미로 통합된다.

(14a)의 문장은 환유표현으로, ‘他被後面的司機警告了一下’와 ‘後面的司機按了一下喇叭’이라는 두 개념이 절합(截搭)된 결과로 생성된 ‘생동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두 개념은 ‘수단-목표’로 서로 연관되는데 ‘按一下喇叭’는 ‘警告一下’의 수단이다.



「그림 3」 ‘他被後面的司機按了一下喇叭’의 환유표현 도식

즉 예문에서는 비록 ‘警告’라는 글자가 쓰이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두 개의 개념의 통합으로 인하여 경고의 ‘생동성’을 나타내며, ‘按喇叭’를 사용하여 ‘警告’를 환유하고 있는 것이다.

沈家煊(2006:9) 그의 이러한 통합적 이론을 가지고, 앞에서 제시한 (5)의 “王冕死了父親。” 예문의 생성방식을 설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구문은 융합적 통합 과정으로 생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절합적 통합으로 생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15) ‘王冕死了父親’의 융합적 통합에 의한 생성 과정  
 a. 王冕的某物丟了                      b. 王冕丟了某物  
 x. 王冕的父親死了                      y.                      ← xb 王冕死了父親
- (16) ‘王冕死了父親’의 절합적 통합에 의한 생성 과정  
 王冕的父親死了(因) + 王冕失去了父親(果) → 王冕死了父親  
 (沈家煊 2006:9)

(15)에서 ‘王冕死了父親’는 ‘王冕的某物丟了 - 王冕丟了某物’와 ‘王冕的父親死了 - 王冕死了父親’의 두 개념이 융합되어 생성된 문장인데, 이 두 개념

은 'a:b=x:y'라는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王冕丢了某物'라는 개념은 이미 '王冕死了父親'이라는 문장 형식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王冕因父親之死而受損'라는 개념을 간단하고 생동감 있는 문장을 사용하여 나타내기 위해, x의 '王冕的父親死了'와 b의 '王冕丢了某物' 융합하여 '王冕死了父親'라는 문장을 생성한 것이다. 또한 이 문장이 은유 표현인 이유는 '死了父親'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丢了某物'라는 비슷한 개념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6)와 같이 '王冕死了父親'이 절합적 통합으로도 생성될 수도 있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인을 나타내는 '王冕的父親死了'와 결과를 나타내는 '王冕失去了父親'은 '원인-결과'로 서로 연관되므로, 환유 개념과 연관시켜 볼 때, 이 문장은 '父親死了'라는 원인으로 '失去了父親'라는 결과를 환유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3) NP1 + 追累 + 了 + NP2 + 了

절합(截搭, haplology)적 통합은 앞에서 제시한 (6) “張三追累了李四了。”의 예문에 대한 생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음과 같이 (7a), (7b), (7d)의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7) a. 張三追李四, 李四累了。  
 b. 張三追李四, 張三累了。  
 c. \*李四追張三, 張三累了。  
 d. 李四追張三, 李四累了。 (沈家煊 2004:3)

沈家煊(2006:8)은 (7a)가 절합적 통합으로 생성되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張三追李四'의 개념과 '李四累了'의 개념이 통합되어 '張三追李四并使得李四累(張三이 李四를 쫓았고 李四를 지치게 했다)'라는 의미가

생성된다. 이것을 융합적 통합이 아닌 절합적 통합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張三追李四’와 ‘李四累了’의 두 개의 개념이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인과 관계에서 ‘원인’과 ‘결과’는 서로 닮은 개념(은유)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개념(환유)이기 때문이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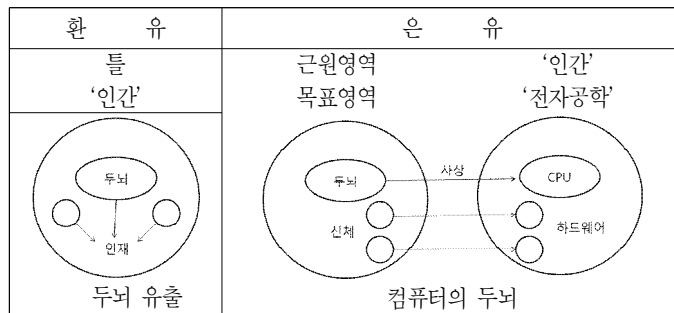
이어서, (7d)는 ‘張三使李四追并使得李四累(張三이 李四로 하여금 쫓게 하였고 李四를 지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의미는 (7a)의 의미보다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累’에는 사역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16) 은유와 환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임지룡 2008:195-196)

	은유	환유
영역 및 사상 측면	다른 영역 간의 사상 관계	한 영역 안의 사상 관계
활성화 기제 측면	유사성	인접성
기능 측면	이해	지시

첫째, 영역 및 ‘사상(寫像, mapping)’의 측면에서, 환유는 한 영역 속의 사상인 반면, 은유는 다른 영역 간의 사상 관계이다. 둘째, 활성화 기제의 측면에서, 환유는 동일한 개념 영역 안에서 매체와 목표 간의 ‘인접성’에 의해 활성화 되는 반면, 은유는 서로 다른 개념영역에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유사성’에 의해 활성화된다. 셋째, 기능의 측면에서, 환유는 한 실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실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지시의 기능을 갖는 반면, 은유는 한 실체를 다른 실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해의 기능을 갖는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면, 이 둘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 a.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해외로 두뇌 유출이 심각하다.
  - b. CPU는 컴퓨터의 두뇌이다.
- 이 두 예문은 아래와 같이 은유와 환유에 관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追’에는 사역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追’가 사역의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의미를 지니게 된 이유는 ‘李四累了’라는 사건으로부터 ‘李四被人追’라는 개념도 발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인 ‘李四追人’이라는 개념도 유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張三追累了李四了。”의 문장은 ‘張三使李四追并使得李四累’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 ‘李四追’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追人’과 ‘人累’의 개념이 통합된 후 ‘追累’가 각각 서로 분리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追’가 ‘累’의 사역적인 의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사역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4.2절과 4.3절에서는 (5)의 “王冕死了父親。”과 (6)의 “張三追累了李四了。”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문장을 沈家煊(2006)이 통합 이론을 가지고 분석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서양 문법에서 발전된 ‘개념적 혼성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통합’이론을 만들어, 이러한 문장 생성 방식에 관해서 해석하여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절합적 통합과 환유와의 관련성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는 절합적 통합에 속하는 표현에 있어서 주로 환유가 가지는 ‘인접성’만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전 저작에서는 환유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현저성’ 개념을 중시하였다.<sup>17)</sup> 어디까지를 환유표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17) 沈家煊(1999)은 환유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현저성(salience)’을 중시하였는데, 그는 Lakoff(*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의 환유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한 바 있다.

<Lakoff(1987)의 환유 모델>

- a. There is a "target" concept A to be understood for some purpose in some context.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해의 대상이 되는 목표 개념 A가 존재한다)
- b. There is a conceptual structure containing both A and another concept B.  
(A 및 그 밖의 개념 B를 포함하는 개념구조가 있다)
- c. B is either part of A or closely associated with it in that conceptual structure.  
Typically, a choice of B will uniquely determine A, within that conceptual structure.

인지, 환유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는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환유’라는 범주를 원형 범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도 고찰해 볼만 하다.

## 5. 결론

지금까지 중국어에서 主語·賓語와 施事·受事が 불일치를 이루는 현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우선 主語·賓語와 施事·受事に 대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따른 해석하기 난해한 불일치 현상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미역의 세분화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대표적인 몇 가지 종류로만 분류되어 있는 의미역으로 문장을 해석하면 불일치 현상이 야기되므로, 의미역을 더욱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미역의 세분화는 主語와 賓語의 위치에 출현하는 성분들을 施事, 受事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정확한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

---

(B는 A의 부분이거나 또는 상위개념구조에서 A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전형적으로 를 선택하면 A를 결정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d. Compared to A, B is either easier to understand, easier to remember, easier to recognize, or more immediately useful for the given purpose in the given context.

(A와 비교하면 B는 더욱 이해하기 쉽거나, 외우기 쉽거나, 인식하기 쉽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적에 더욱 직접적으로 쓸모가 있다)

e. A metonymic model is a model of how A and B are related in a conceptual structure; the relationship is specified by a function from B to A.

(환유 모델이란 개념구조에서 A와 B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모델이며 그 관계는 B에서 A에의 함수라는 모습으로 나타내어진다)

을 뿐 아니라 문장의 모든 성분에 의미역을 지정할 수 있어 언어학적 분석 및 자연언어처리에 있어서 유용하며,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 과제들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불일치 현상에 대해 생성문법에서 부족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인지문법과 구문문법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불일치 현상에 대한 인지·구문문법에 근거한 연구들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아직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연구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불일치 현상에 대한 더욱 참신한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

### 參考文獻

- 김현권·김동명, 「세종 용언전자사전의 의미역 기술체계 및 목록」,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과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과학연구회, 2001.
- 김현철, 『現代中國語의 賓語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시정곤, 『논항구조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0.
-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2008.
- 정태구, 『논항구조와 영어통사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1.
- 필옥덕, 『현대 한국어 동사 의미결합관계 연구』, 서울: 역락, 2004.
- 허 벽, 「馬建忠과 「馬氏文通」」, 『人文科學』 68, 1992.
- Fillmore, C.J., *The Case for Case: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Winston(남용우, 임선호외 역, 『격문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을유문화사, 1986), 1968.
- Goldberg, A.,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Chicago UP(손영숙 외, 『구문 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2004), 1995.



- Kövecses, Zoltán,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이정화 외 역, 『은유』, 서울: 한국문화사, 2003), 2002.
- Langacker, Ronald W.,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 Vol. II,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김종도 옮김, 『인지문법의 토대II』, 서울: 박이정, 1999), 1991.
- \_\_\_\_\_,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2nd edition), Berlin: Mouton de Gruyter.(나익주 옮김, 『개념·영상·상징: 문법의 인지적 토대』, 서울: 박이정, 2005), 2002.
- 封宗信, 『現代語言學流派概論』,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7.
- 陆俭明, 「構式語法理論의 價値與局限」,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1期, 2008.
- 李临定, 「施事, 受事和句法分析」, 『語文研究』 4期, 1984.
- 沈家煊, 「轉指和轉喻」, 『當代言語學』 1期, 1999.
- \_\_\_\_\_, 「句式和配價」, 『中國語文』 4期, 2000.
- \_\_\_\_\_, 「動結式“追累”的語法和語義」, 『语言科学』 6期, 2004.
- \_\_\_\_\_, 「“糝合”和“截搭”」, 『世界漢語教學』 4期, 2006.
- 張伯江, 「論“把”字句的句式語義」, 『語文研究』 1期, 2000.
- \_\_\_\_\_, 『從施受關係到句式語義』, 北京: 商務印書館, 2009.
- 朱德熙,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1982.
- \_\_\_\_\_, 『語法答問』, 北京: 商務印書館, 1985.
- 辻幸夫, 『認知言語学キーワード事典』. 東京: 研究社(임지룡 외 옮김,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2004), 2002.

Abstract

Mismatch Phenomena between ‘Agent · Patient’ and ‘Subject · Object’

Park, Da-rae

This study aims to consider mismatch phenomena between ‘Agent · Patient’ and ‘Subject · Object’ in Mandarin Chinese, and tries to understand these phenomena based on theories of cognitive grammar and construction grammar.

‘Agent · Patient’ is a concept of semantics, and ‘Subject · Object’ is a concept of syntax. But as the integrated research on syntax, semantics, pragmatics advances, there has been a growing tendency to equate agent with subject and patient with object. However, there are many mismatch phenomena between ‘Agent · Patient’ and ‘Subject · Object’. Accordingly, many linguists have made many inquiries into these phenomena and tried to explain them in many ways.

This study first presented a brief overview of the relation of ‘Agent · Patient’ and ‘Subject · Object’ and sentences that have mismatch phenomena. In the 1950s, there were controversies about how to give a definition of subject and object. There were two different opinions, one claims that they have to be determined by the syntactic positions (subject-verb-object), the other claims that they have to be determined by their meaning, which means subject has agent meaning, object has patient meaning.

Afterward, this study claims that subdivision of theta-role can be useful for solve the problem of mismatch phenomena. Because this can resolve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aforesaid two different opinions and more tangible and obvious theta-role can be assigned to every argument.

Lastly, this study explained mismatch phenomena between ‘Agent · Patient’ and ‘Subject · Object’ using the terms of ‘Saliency’, ‘Conceptual Blending Theory’, ‘Gestalt’ in the theories of Cognitive Grammar and Construction Grammar.

Key words : Agent, Patient, Theta-role, Gestalt, Saliency, Conceptual Blending Theory

투 고 일 : 2018. 10. 10. / 심 사 일 : 2018. 10. 15. ~ 2018. 11. 15. / 게재확정일 : 2018. 11. 20.